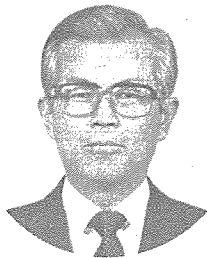


韓國科學기술원

綜合研究기관으로서  
특성을 최대한發揮



李正五  
〈韓國科學技術院 院長〉

지난 86년의 과학기술원은 학사·연구 공히 실질적으로 알찬 結實을 거둔 한 해였다.

중래의 일부 침체된 분위기도 해소돼가고 있고 모든 일이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活性化되어 가고 있어, 이는 매우 고무적인 변화라고 하겠다.

교육의 質的向上과 박사과정 중심의 체제 확립도 정착화 되어가고 있으며, 20대 박사의 배출 등으로 국민의 기대도 모아지고, 연구면에서도 그 어느때 보다도 활발하게 크고 작은 실적들을 많이 쌓았던 한 해였다.

학사부문에 있어서는 석·박사 620명의 과학기술 인재를 輩出했으며, 박사의 경우는 배출된 인원의 과반수가 20대에 박사학위를 받게됨으로써 20대 박사의 배출이 본격화 되었다.

이는 국내실정에 맞는 고급 과학인력을 조기에 輩出함으로써 과학기술 선진국 진입에 더욱 박차를 가한 뜻깊은 일이라 하겠다.

연구부문에 있어서는 2000년대의 산업기술개발을 先導할 尖端技術 개발을 중점적으로 강화한 한 해였으며, 研究契約高度 85년에 비하여 크게 증액된 180억원의 연구계약고를 遂行하여 높은 伸長率 기록과 함께 우수한 연구실적을 남겼다.

돌이켜 보면 1981년도에 한국과학기술원으로 새로이 出帆한 이후 지난 6년간 소속원 모두가 어려움을 슬기롭게 克服하고 새로운 발돋움으로 發展을 거듭하여, 이제는 모든 국민이 期待하는 先進祖國 創造의 主役으로서 한국과학기술원의 이름은 국내외에서 名聲을 얻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원은 새로운 發展을 위한 轉換期를 맞이하고 있으며, 87년은 跳躍을 향한 전진의 거보를 내 던져야 할 해가 된 것이다.

제5공화국 출범 이후 우리나라는 科學振興에 중점을 두고 이른바 技術優位 政策을 추진하여 왔다. 특히 대통령 주재의 기술진흥확대 회의가 설치되었고, 과학기술투자의 획기적 증액과 함께 技術主導의 경제전략 발전에 국민역량을 총 집결하였다.

80년대 기술드라이브의 結實은 이미 우리 눈

앞에 실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우리 손으로 개발한 첨단기술제품이 세계시장에 輸出되고 있으며, 수출상품 구성도 변하고 있어 技術商品의 浮上이 두드러지고 있다.

또 우리 產業界, 研究界, 學界의 技術축적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에게 科學기술입국의 可能性과 自信感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시작이다. 대일 무역 역조의 뿌리는 韓日間의 技術隔差에 있다. 우리는 이 技術격차의 수모를 면하고 外채대국의 꼴레를

것이다.

올해 科學기술원은 綜合研究機關으로서의 特性을 최대한 發揮할 수 있는 대형연구 프로그램을 計劃推進하고 學事發展을 위해서는 基礎研究를 活性化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計劃이다.

학생모집 인원도 확대하여 박사과정 330명을 포함하여 880명을 모집하게 되며, 博士輩出의 숫자가 100명선을 넘어서게 되어 본격적인 고급인재 양성체제를 확립하게 될 것이다.

연구부문에 있어서는 86년보다 훨씬 증액된

### 우리나라 科學技術진흥과 技術開發의 중추기관으로서

#### 2000년대 科學技術 先進國으로 浮上하는데 寄與하기 위해 拍車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2000년대의 科學기술 선진國으로 浮上하기 위해서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한국科學기술원은 우리나라 科學기술 진흥과 技術개발의 中樞機關으로서 技術우위의 國際 경쟁시대에서 科學기술원의 役割에 國民적 期待가 모아지고 있다.

이러한 중차대한 任務를 기어히 해내야 하는 韓國 科學기술원은 잠시라도 정체해 있거나 표류하고 있을 수는 없으며, 선진國에 비하여 제한된 資源과 人力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서는 그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몇배의 努力이 더 필요한

200억원 규모의 연구계약고를 목표로하고 명실공히 國家科學技術개발에 中추적 役割을 다 할 것이며 연구성격도 特種과제가 70%선을 넘어, 중·장기에 걸쳐 개발되어야 할 대형 연구과제에 重點을 두어 연구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科學技術大學도 금년부터는 실질적인 協力을 통하여 연계운영계획을 실천해 나갈 예정이다.

大德移轉計劃은 기존 계획대로 착실히 진행되고 있으며, 科學기술원의 백년대계의 발전과 擴충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을 것이다.

대덕 이전에 즈음한 연구장비의 現代化 計劃은 새해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課題이다.

